

이야기로 풀어낸 고려인들의 생활사

《5백년 고려사》 펴낸 박종기 교수

그간 고려왕조는 조선에 비해 미성숙한 사회로 인식돼 왔다. 박종기 교수는 최근 펴낸 《5백년 고려사》에서 고려사회가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귀족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집단과 사상에 의해 이끌린 다원론적인 사회라고 주장한다.

‘조선왕조 5백년’이라는 단어는 친숙하면서도 고려왕조는 몇년인지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고려인들의 생활사는 그 흔한 역사소설에 서조차 접하기가 어렵다. 최근 박종기 교수(48, 국민대 국사학과)가 펴낸 《5백년 고려사》(푸른 역사)는 이런 갈증을 풀어주는, 쉬우면서도 꽤 깊이 있는 역사개설서다.

“지금까지도 고려사는 일반 대중뿐 아니라, 연구자들에게도 그 실상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려사 연구자도 고려왕조를 조선 왕조로 나아가는 과도기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일 정도니까요.”

그래서 흔히 고려가 조선에 비해 미성숙한 사회로 인식돼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교수는 고려사회 역시 조선사회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발전원리와 특성을 가진 ‘또 하나의 전통’이라 설명한다.

박교수는 이 책에서 ‘고려사회는 귀족사회가 아니라 다원사회’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기존 학계의 정설을 뒤엎는 주장이다.

“고려사회는 다양한 인간집단과 사회조직, 다양한 사상과 문화에 의해 이끌린 다원사회입니다. 그것은 사상과 문화에서 다양성과 통일성을 지닌 모습으로, 대외적으로 개방적이고 대내적으로 하층민의 정치진출이 활발한 역동적인 모습으로 구체화됩니다.”



박종기 교수

예컨대, 팔관회는 불교와 향도신앙, 성황신앙 등 다양한 사상풍토를 인정하고 이를 통일적으로 묶어주는 행사였다는 것이다.

박교수에 따르면, 통일신라와 조선이 각각 골품제 원리와 성리학적 원리로 움직인 일원론적 사회라면, 고려는 다양한 원리로 움직인 다원론적 사회다. 그리고 고려사회의 다원성은, 지방세력들이 기존의 지배세력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면서 성립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박교수는 이밖에도 고려사회를 구성하는 국왕·관료·민(民)의 생활, 지방의 유력한 세력에게 성씨를 부여하는 제도인 본관제, 경제구조·직역구조·군현제 등의 제도를 통해 자신의 독자적인 주장의 근거를 밝힌다.

《5백년 고려사》는 다른 역사책에 비해 이야기식 문체와 생활사 중심의 서술체제가 특징이다.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식 문체는 최근 쏟아지는 대중역사소설들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에서 비롯했다. 대중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박교수는 강의를 직접 녹취하기도 했다. 이 책이 독특한 서술체제를 갖게 된 것은 4년 전 제자들의 가르침이 한몫했다.

“고려사를 기존의 정치사·제도사 중심으로 한학기 동안 강의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고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조사했지요. 그 결과는 대부분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먹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생활사에 대한 것이었어요. 제 강의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요구가 나온 것이었죠.”

박교수는 역사학이 대중들과 멀어지는 이유를 깨달았고, 서술체제를 바꿔야 역사학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3년 동안 강의내용을 계속 바꾸면서 보완한 결과가 지금의 내용과 형식을 갖춘 《5백년 고려사》가 됐다.

박교수가 고려시대에 관심 가진 것은 대학원 시절 학위논문을 준비하면서부터. 처음엔 조선시대 촌락문제를 연구하다가 그 기원이 되는 고려의 향·소·부곡을 자연스럽게 연구하게 됐다.

박교수는 “역사학자의 임무는 과거 사실을 단순히 소개·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인간에게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박교수는 ‘제3의 역사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지금까지 사학계는 우리 사회의 자율적인 발전을 부정하는 식민사학과 민족 자주성의 발견을 목표로 삼는 민족사학이 대립해 왔습니다. 제3의 역사학이란 이런 대립에서 벗어나 전통과 현재의 접목 혹은 역사와 현재의 일체화를 이루자는 것이죠. 즉, 역사와 전통을 오늘날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인가는 질문에 대답해 보자는 것입니다.”

박교수는 앞으로 《한국지방사회사》와 《이규보 평전》을 저술할 계획이다. “특히 이규보의 삶과 행적은 오늘날 우리 지식인에게 하나의 전형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박교수의 설명이다.

— 김정은 기자